

1.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20학번 졸업생 김O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춘천성심병원 정형외과 PA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병원소개 및 업무소개

춘천성심병원 정형외과 PA는 보통 병동PA와 수술PA로 분담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동 PA 업무를 주로 맡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동 PA가 주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수술 스케줄 관리와 교수님들이 정해주신 범위에서 루틴적인 처방을 내고, 처방과 관련된 의사와 병동 간호사들 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BGA, EKG, C-line remove, H-vac remove, Foley insertion & remove, 수술 부위 dressing, 기본적인 동의서 작성 등 보통 인턴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3. 취업 준비 과정

대학병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재단병원이니 만큼 학업을 열심히 하여 학점 관리를 잘 하고, 실습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소서에 남들과 다른 경험을 예를 들어 어필을 하였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잘 대답하고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단 병원이니 만큼 실제 실습 했던을 어필했습니다. 또, 연고지 관련 질문도 받았고 집이 춘천인 것도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4.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PA에 관심이 많은 후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규 간호사로 PA를 온다고 하면 초반에 병원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큰 틀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처방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 만큼 병동 간호사들의 업무와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병원 전체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환자를 항상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과에서 주로 쓰는 약, 보조기, 검사, 물리치료 등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공부양이 많아 힘들 수 있지만, 교수님들과 병동 간호사들과 소통하면서 환자의 입원부터 수술, 퇴원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얻게 되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가게 되는 병동이나 중환자실을 경험 하고 그 후에 PA업무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PA도 인정되는 시기인 만큼 한번 도전해도 좋은 직무라고 생각합니다.